

보도일시	2017. 4. 27.(목) 10:00	배포일시	2017. 4. 27.(목) 09:0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 고광희 (044-215-2750)	담당자	이희곤 사무관 (044-215-2751) hglee0607@korea.kr 염철민 사무관 (044-215-2754) yum7157@korea.kr
	행정자치부 지역경제과장 황상규 (02-2100-3890)		김지은 사무관(02-2100-4205) ck8219@korea.kr
	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감찬 (044-203-4330) 산업통상자원부 창의산업정책과장 박재영 (044-203-4360)		박태현 서기관 (044-203-4331) pthtop@motie.go.kr 이상은 서기관 (044-203-4362) selee@motie.go.kr
	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장 이현옥 (044-202-7404)		김병수 사무관 (044-202-7410) kbs1123@korea.kr
	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 강주엽 (044-203-3201)		정덕기 사무관(044-203-3203) evianjdk@korea.kr
	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장 전재우 (044-200-5710)		류선형 사무관 (044-200-5715) hate38@korea.kr
	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동엽 (044-200-2190)		조해린 사무관(044-200-2187) chohaelin@korea.kr
	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이동훈 (02-2100-2920)		김정주 사무관 (02-2100-2921) bluesky3@korea.kr
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장 황영호 (042-481-4545)	김승택 사무관 (042-481-4585) kseungtaik1@korea.kr		

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

-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 논의 -

◇ 정부는 '17.4.27일(목) 10:00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「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」을 논의하였습니다.

□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별첨. 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길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@korea.kr



제12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부총리 모두발언

이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하여 사전에 배포해 드리는 자료입니다. 실제 발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부총리 발언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최근 우리경제는 세계경제 회복에 힘입어 두 자릿수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소비 및 투자심리도 개선되는 등 긍정적 회복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
 - 오늘 발표된 1/4분기 GDP(속보치)가 당초 예상보다 상당폭 높은 전기비 0.9% 성장하면서, 최근 주요기관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 상향조정을 뒷받침하고 있음
- 다만,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움직임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어
 - 세계경제와 국내경제가 장기간의 위축에서 벗어나 확장적 선순환 국면으로 진입했다고 장담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임
- 따라서, 정부는 경기회복에 대한 선부른 기대나 자만을 경계하면서 최근의 회복세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겠음
 - 특히, 다음 정부가 순조롭게 경제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,
 - 24조원 수준의 재정보강과 상반기 재정조기집행(58%) 등 적극적인 거시정책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음
 - 아울러,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현안인 대우조선의 문제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로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겠음

- 지난번 회의에서 정부와 채권단은 대우조선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신규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
 - 다행히 시중은행, 사채권자, 대우조선 근로자와 경영진 등 이해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손실분담에 동참함으로써
 - 국민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대우조선의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
 - 경제부총리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이해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림
- 하지만, 자율적 채무조정의 성사는 대우조선 구조조정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며,
 - 구조조정의 성패는 결국 수익성 있는 수주물량을 확보하고 철저한 자구노력을 이행하는 데 달려있음
- 수주실적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조선시황의 영향을 크게 받겠지만, 경쟁력있는 분야에서 수주물량을 확보하는 데 대우조선의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
 - 이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해양금융종합센터의 수익성 평가를 대폭 강화하여 제살 깎아먹기식 저가 수주경쟁을 방지하겠음
- 자구노력은 「말」이 아닌 「실천」이 중요함
 - 이미 마련한 5.3조원의 자구계획을 전면 재점검하여, 각 건별로 이행상황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자구계획의 이행 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음

- 아울러, 이번 자율적 채무조정 합의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약속한 총인건비 25% 축소, 직영인력 추가 감축도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겠음
- 앞으로 대우조선의 경영관리는 산업은행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음
 - 5월초까지 회계, 법률, 산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「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」를 구성하여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과정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음
- 정부와 채권단은 이러한 경영정상화 노력을 통해 대우조선이 건실한 재무구조와 수익성을 갖춘 “작지만 탄탄한 회사”로 거듭나도록 하는 한편,
 - 2018년 이후에는 대우조선 ‘주인찾기’를 통해 근본적인 해결을 도모함으로써 구조조정의 성공사례가 되도록 하겠음